

선교지의 COVID-19를 위한 기도

최윤섭
COVID 19에서 회복되셔서 사역 중에 있으십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루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나온 확진 판정받은 교인들이 모두 퇴원했다고 합니다.

강형민
COVID 19에서 회복중에 있으십니다.

김봉년
예카테린교회의 총 10분이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아직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선민
타타르스탄에 주선민 선교사 부부가 COVID 19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사할린 은혜중앙교회 이길원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타쉬켄트 김로만 목사님 가족이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기도제목

파나마 김재한 그레이스 김

1. 선교사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어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2. 정글 속 각 교회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코비19사태를 통해 건강을 지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3. 주님께서 예비하신 10헥타르(약 25에이커) 학교, 농장부지가 구입 될 수 있도록.
4. 각 정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바이블타임을 통해 말씀 읽기와 묵상,기도 생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5. 하루 빨리 코비19사태가 안정되어 교회와 선교가 정상화 되길.

캄보디아 김광석 김영미

1. 선교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의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3. 이후로 주께서 쓰실 만한 작은 공간이라도 매입하여 쓰나오 마을을 중심으로 충실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4. 좋은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5. 교회친구들이 환경과 상관 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

- 붙어 있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도록
6.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잘 적응하며, 또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7.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탄자니아 정부진 그레이스 조

1. 저희 부부의 재충전과 코로나 후에 사역의 방향을 잘 세우도록
2. 어머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하여
3.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4,6학년 국가 시험을 잘 치루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수 있도록.
4. 내년에는 중학교를 신설할수 있도록. 올해 저희 초등학교 첫 졸업생이 생깁니다.

광 고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은혜한인교회

2020년 8월 16일

선교사 현황

58개국 344명

자체파송 71%

파나마 다시 시작되는 선교~!

중요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 Panama Yaviza에서 7월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벌써 한 해의 중반을 넘어 파나마가 5개월째 코비19사태를 맞이하면서 일상 생활 등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부족한 중은 건강을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주에 증상이 시작되어 한 주를 집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로 견디다. 마을 병원에서 코비19 검사를 통해 양성 나오고 이를 후에 지역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파나마시 큰 병원으로 후송되어 한 주를 입원하고 또한 Dengue열이 동시에 감염되었음이 밝혀져 특별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그 후 2번의 코비 19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Dengue열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진통제, 설사약등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습니다. 마침 집사람이 코비19으로 인해 베네주엘라 방문했다. 돌아오지를 못하고 LA로 가 머물고 있어 저를 돌볼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이곳 파나마 한인교회에서 목사관에 머물라 하셔서 그곳에서 한 주를 머무는 동안 성도님들이 부족한 중을 하루 3끼 식사와 사랑으로 섬겨주어 힘을 갖고 Yaviza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께서 부족한 중을 빠르게 회복 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 선교

7월 마지막 주에는 나눔선교회와 한국위기관리대책본부의 지원으로 이곳 인디언마을에 제2차 식량포대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1차에는 교회 성도 중심으로 식량을 전달 했지만 이번에는 교회가 있는 마을에 가난한 가정을 선별해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5개월 넘게 코비19사태로 파나마시에서 농산물 구입하러 오는 추력들이 줄어 들면서 농산물판매를 못하는 많은 인디언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19과 Dengue열이 더욱 심해져 1차때와 같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 내려놓고 교회 리더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도 있었지만 식량을 받고 기뻐할 가정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각 식량포대에 바이블타임 8,9월호를 함께 넣어 가정에서 매일 성경말씀을 읽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주실 땅을 기도하며 ~ ~

그동안 기도해 오던 기독교 학교 사역을 위한 부지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10헥타르(약25에이커) 땅이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계속해서 학교부지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곳 Darien주 토지관리 정부 디렉터가 올 초에 새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베다니교회 성도 아들입니다. 그 분이 제가 학교부지를 찾다는 소식에 아는 사람이 45헥타르(약110에이커)땅 매매를 맡겼다고 관심이 있으면 만나자고 해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만나 부지와 서류들을 확인하고 현지에 가 부지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다리 옆이고 콜롬비아쪽 도로가 날 곳과 맞붙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우리 베다니교회가 있는 PinoGana 마을 강 건너입니다.(콜롬비아 국경까지 다리 2개가 필요한데 선교사가 사는 Yaviza마을과 PinoGana마을임) 기도 하기는 45헥타르 중10헥타르를 구입해 5헥타르는 학교부지로 나머지 5헥타르는 농장으로 개발해 망고, 파파야, 파자바등 과실수와 고구마등을 심어 학교와 선교재정에 자립을 도우려고 합니다. 부지 구입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던 정글교회 성도들이 선교사의 안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7월 2째 주에 폴로목사와 함께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PinoGana 마을 베다니 교회는 그 동안 기도 모임을 교회에서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코비 19가 더욱 심해져 교회문을 닫게 되어 실망하는 성도들에게 바이블 타임을 전달하며 위로하고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해 가도록 위로 했습니다.
선교사가 개척한 7개 교회 중에 지난주까지 3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모임을 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교회, 소망교회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속적으로 구입해 전달하고 교회 안에서 거리 두기를 꼭 지키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32년간의 정글 인디언 사역 중에 급성 c형감염으로 6개월 투병, 허리 사고, 배사고, 교통사고, 강도, 2차례 게릴라로 부터의 쫓김 등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처럼 생명의 위험을 느껴보진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공화로 다시 한번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는 지금 그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후방에서 기도해 주신 선교 동역자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족한 중에게 맡기신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후방의 기도 동역자님들과 함께 걸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파나마 김재한 그레이스 김 선교사-

태국의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선훈8기)의 선교지소식과 가정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2020 0705 청지기소식지에 있습니다.



베네쥬엘라의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의 빈민가 사역 자세한 내용은 2020 0705 청지기소식지에 있습니다.



멕시코의 이종식 선교사의 선교 소식 자세한 사역내용은 2020 0705 청지기소식지에 있습니다.



백원일 선교사님의 나바호 지역 구호물품 전달 자세한 사역내용은 2020 0705 청지기소식지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한규설 김정미) 선교사(선훈7기)의 교회사역, 기숙사사역, 한글학원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0712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보안)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서 사역하시는 송규영,오호숙선교사(선훈5기)의 학교사역, 성경대학, 컴퓨터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0712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보안)



인도의 남국희선교사(선훈2기)의 인도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2020 0712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보안)

파푸아뉴기니의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선훈9기)의 비상사태 가운데서도 각 부족별로 성경번역 사역을하시는 자세한 내용은 2020 0719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타지克斯坦의 최윤섭 선교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 받으신 이후의 자세한 소식은 2020 0719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에서 13년째 사역하시는 정부진 조재숙 선교사(선훈1기)의 학교사역, 사랑의 쌀 나누기, 키투두 지역 우물 사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0719 선교소식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요12:44-50,엡1:3-14). 복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중생, 성령충만, 신유, 축복, 재림으로 세분화하여 설명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이 생겨나고, 학파가 생기고, 신학 철학과 사상이 나타나고 해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해져 왔다. 보다 잘 믿고 행하고자하는 인간측면에서의 노력일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니 말씀이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서로 옳다는 다툼도 있고, 자기도취도 있어 왔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인간의 한계적 능력으로 풀다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교회는 진리가 나가야하는 방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현세적 복음, 현세적 축복, 세대주의, 대체신학, 사역중심, 가시적 결과추구, 기복신앙은 물론 어느 신학, 또는 종파, 혹은 신학적 사상에 알게 모르게 편입되어 진정으로 추구해야할 진리가 멀들어 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이다. 이 때문에 의외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본의와 의도를 놓치고 헤매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며 깊은 가슴앓이를 앓고 있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심지어 견디다 못해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이들로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각성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리고 본 대로 행하신다(요12:49)고 하신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자세와 본질을 자각하여 현대교회도 충실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간이 만든 신학, 사상은 학문적인 분야로 놓아두고, 세속적인 것과 타협적인 것은 버리고, 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마7:21).

병자는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간다. 배고픈 자는 배를 채우려고 식당에 간다. 지식이 필요한 자는 학교로 간다. 돈이 필요한 자는 일터로 간다. 죽은 자는 묘지로 간다. 우리는 왜 교회를 가는 것일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이다(요3:16).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지옥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이다. 현세적 축복을 원하면 일을 더 해야 옳을 것이다. 명예나 만족을 위해서는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교계에 나타나는 가장 많은 간증들이 치유와 물질적 축복, 사역의 이야기들이라고 한다. 과거같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간증들은 듣기가 힘든 현실이 되었나 보다. 가슴 아픈 일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복음을 통하여 영혼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마5:3,6:10).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사탄과 함께 가야 하는 죄인(계20:11-15,21:8,22:14,15)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케 하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므로써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기거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계21:7-27). 이것이 이 땅위에 교회가 있어야하는 까닭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핵이고 복음의 목적이다. 이생의 축복과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복음과 먼 이야기이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늘 환란과 역경이 있기에 가난과 고통은 마땅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전쟁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나라(천국)를 쟁취하는 일이다(계21:3). 그래서 진정한, 정직한 복음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복음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이며(사55:7,요14:6,롬1:16,17),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삶이다(마7:218:31).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이다(창1:28,2:15). 이는 예배적인 삶이요(창2:15,요14:23),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다(요8:31,약2:14,계19:7,8). 핵심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 천국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사역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 사역은 친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인간의 계획과는 무관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사역은 구원이 아닌 상급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구원, 하나님나라의 소유가 우선이다(막10:17-31).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마6:33).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눅21:34)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살전5:6-10,벧후3:10,11,계21:18-27). 마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한다(마25:1-13). 현실과 타협된 삶(반 믿음 반 세상), 다시 말해 육에 속한 자는 아니지 않은가.

당신은 지금 어느 복음안에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준비된 삶이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나라가 코앞까지 와 있는 것만 같다. 고로 우리는 현세적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 참된 복음안에 있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아 기어코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성(계21:2)에 들어가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하실까? 바로 복음이라고 본다.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복음안에 있어야 한다.